한화투자증권

2024년 7월 25일
매크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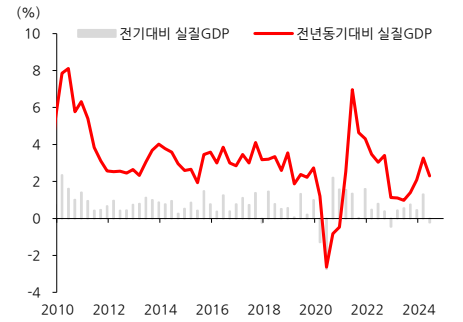
Macro Review

2/4분기 한국 GDP: 하반기 내수 반등 전망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3772-7720 / Economist 임혜윤 hylim@hanwha.com 3772-7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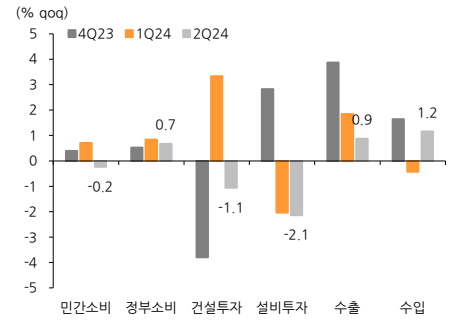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2/4 분기 GDP: 전기대비 -0.2%, 전년동기대비 +2.3%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소비와 투자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4 분기 국내 성장은 기대보다 약했습니다.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가계와 기업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생활물가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수가 반등하면서 경기 하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2/4분기 GDP, 전기대비 역성장

한국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하며 6개 분기 만에 역성장(전년동기대비로는 2.3% 성장). 민간소비(-0.2%)와 설비투자(-2.1%)가 감소했고, 수출(+0.9%) 증가 폭도 축소

내수 부진이 성장 둔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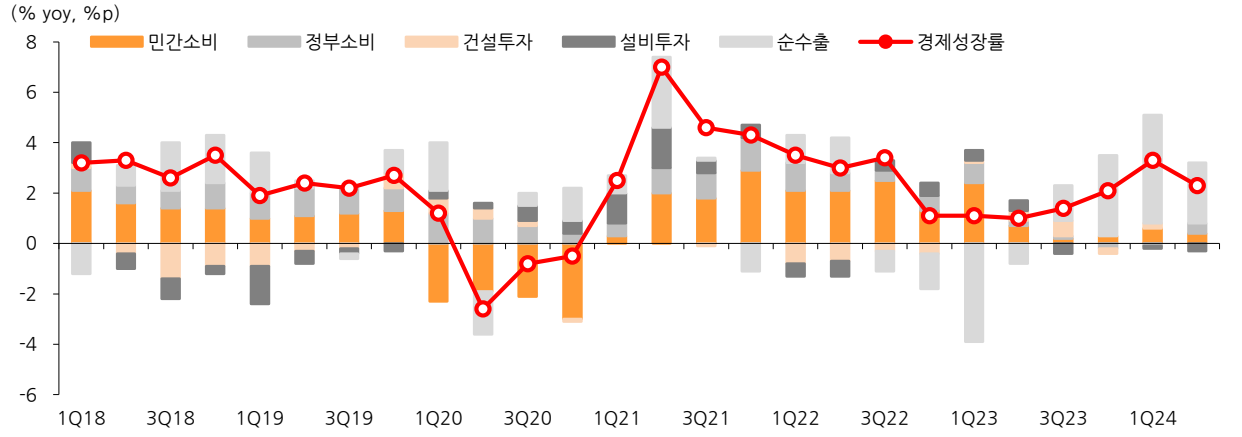
내수 부진이 성장 둔화 원인. 민간소비(-0.1%p)와 설비투자(-0.2%p)가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했고, 지난 분기 강했던 건설투자(-0.2%p)도 감소 전환. 또한, 원유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순수출(-0.1%p)의 성장 기여도도 하락

하반기 수출 모멘텀 약화되겠지만, 내수가 반등할 것

상반기 2.8% 성장은 양호한 수준인데, 이는 주로 수출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 금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지난 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던 부분을 감안해도 부진했음. 이처럼 상반기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내수가 점차 반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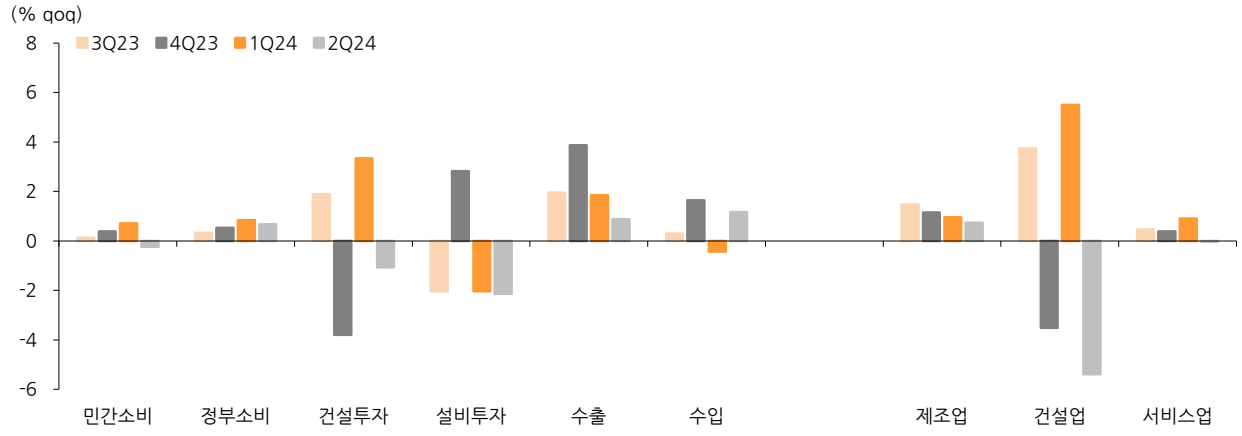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은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 높음. 반도체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외수요 회복이 더디기 때문. 반면, 소비는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반등할 전망. 설비투자 또한 기업심리 회복과 시설자금 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추가 위축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음.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내수 회복이 이를 어느정도 만회하는 흐름 예상

[그림1] 2/4 분기 GDP: 여전히 내수보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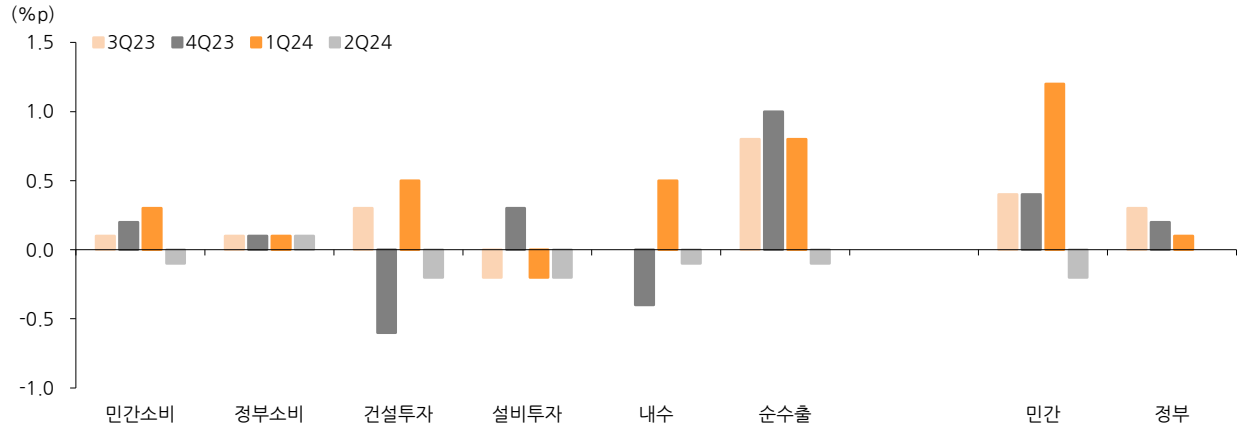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지출항목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소비와 투자 둔화, 산업 전반적인 성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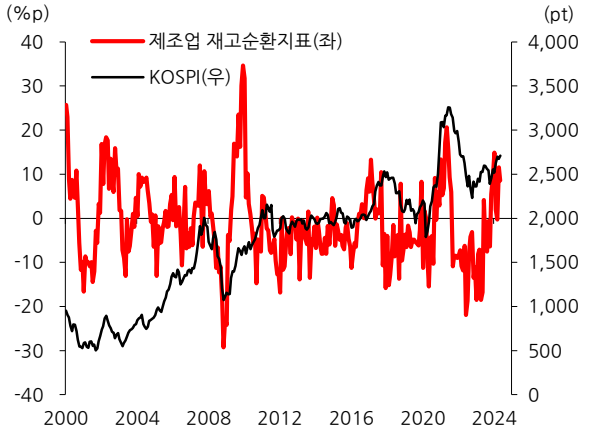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DP 에 대한 전기대비 기여도: 내수와 순수출의 기여도 동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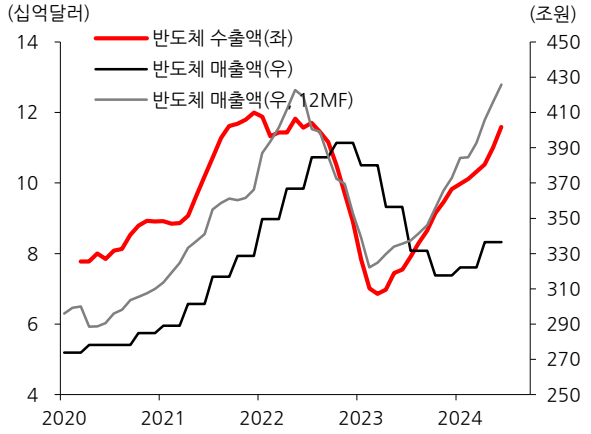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제조업 재고 사이클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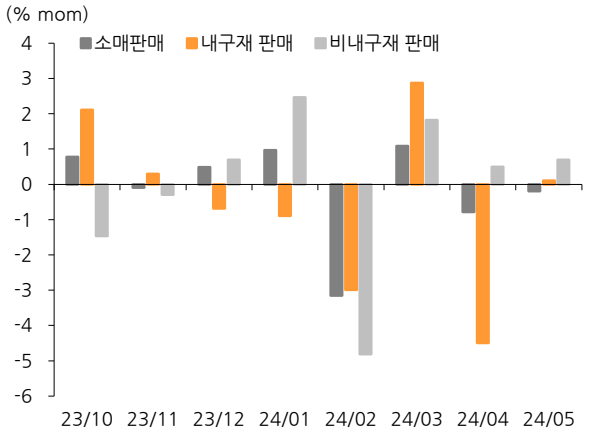
주: 재고순환지표(%p) = 출하 증감률(%) - 재고 증감률(%)
자료: 통계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반도체 수출 반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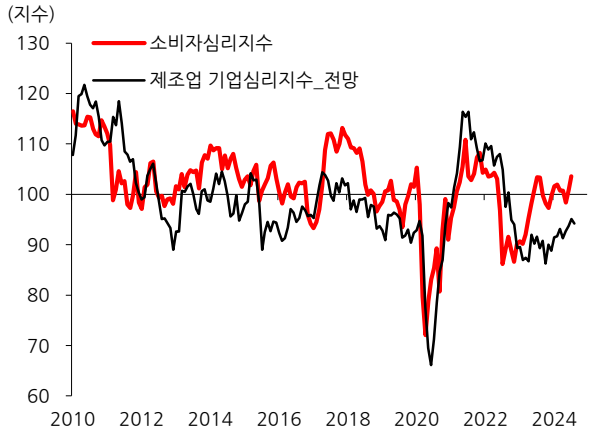
주: 수출액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관세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소비 회복이 다소 더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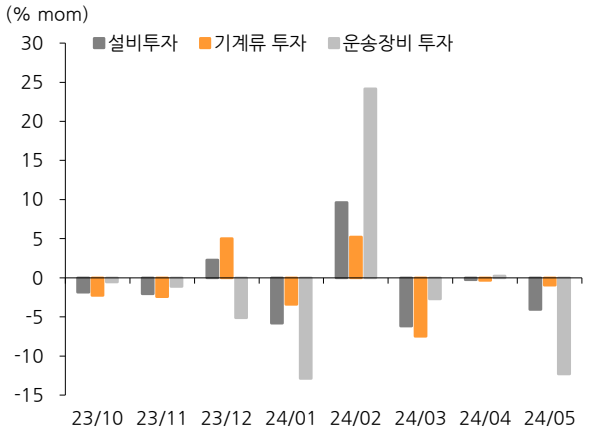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가계 및 기업심리는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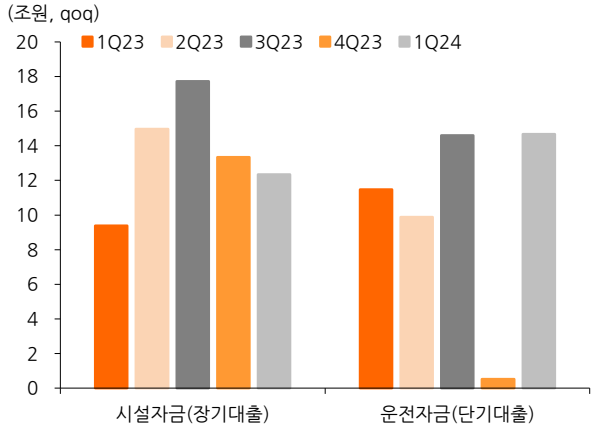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설비투자도 둔화됐지만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은 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